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보도자료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	
배포일자		2024년 5월 7일(화) 총 4매			
담당 부서	섬해양정책과	담당자	• 해양산업팀장 • 담당자	조은주 이주영	☎ 440-4846 ☎ 440-4848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역대 최대규모 테마크루즈 유치, 4천여 명 인천 관광
-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일본 기항 예정이던 중국궤 전세 크루즈 유치 -
- 인천 관광한 크루즈 관광객 벌써 지난 해 실적 상회,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-

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5월 7일 오전 7시 4천여 명을 태운 중국궤 전세크루즈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했다고 밝혔다. 5월 5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5월 7일 인천에 기항, 인천, 서울을 관광한 뒤 상해로 돌아가는 일정이다.

로얄캐리비안(Royal caribbean) 선사의 스펙트럼오브더씨호(Spectrum of the seas)는 2019년 건조, 승객 5,600여 명, 승무원 1,500여 명 등 총 7천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6.9만 톤급 대형 크루즈로, 인천에 입항한 크루즈 중 역대 최대 규모다.

인천시는 인천의 기항관광지를 테마로 한 크루즈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며, 중화궤 크루즈 관광객 4천여 명 전원이 인천을 관광하게 되는 첫 번째 인천형 테마크루즈를 유치해 인천 크루즈관광 활성화의 물꼬를 텃다.

특히 이번 크루즈는 당초 행선지가 일본 오키나와로 예정돼 있었으나,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,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한국행을 이끌어 냈다.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, 인

천항만공사는 2022년 대만 국제여전(ITF)에서 인천 관광 설명회 및 업무간담회를 개최하며 해당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했으며, 2023년 중국 상해 로얄캐리비안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마케팅으로 인천의 기항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알렸다.

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한국 전통 사물놀이 등 환영행사(오전8~10시)를 개최하고 승무원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, 인천 관광 홍보관 운영과,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 신포국제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증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.

또한, 인천 환송을 위해 저녁 6시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더 픽스(THE FIX), 크라잉넛(CRYING NUT)이 펜타포트 라이브 스테이지를 열어 인천 글로벌 축제인 ‘펜타포트음악축제’를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.

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적극적인 크루즈 유치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발 전세 크루즈가 인천으로 입항했다”며 “앞으로도 다국가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참가하는 등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올해 1분기(1~3월)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총 9,688명(승객 6,147, 승무원 3,541) 중 5,400여 명이 인천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 425명보다 12배 증가한 수치다. 이번 중국발 전세 크루즈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이 인천을 관광한 것으로 보여져, 지난해 인천을 관광한 크루즈 관광객 총 6,526명보다 크게 웃돌았다.

* 크루즈관광객 1인 소비지출 기항 136.7달러 지역 경제 기여
(한국관광공사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참고)

인천시는 올해 1박 2일 정박하는 오버나잇 크루즈와 플라이앤크루즈(Fly&Cruise)*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서 관광하고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* 항공기와 크루즈선을 연계한 것으로 공항을 통해 들어온 승객이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크루즈 상품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중국發 「스펙트럼오브더시 크루즈」 관광객 인천 관광

◇ 크루즈 관광객 연계한 「인천형 테마크루즈」 신규 유치 크루즈산업 활성화

* 크루즈관광객 1인 소비지출 기향 136.7달러, 모항 256.2달러 지역경제 기여

□ 입항 개요

- (입항/출항) '24. 5. 7.(화) 07:00^{입항} ~ 22:00^{출항}
- (선박/선사) 스펙트럼오브더시/로얄캐리비안
- (탑승정원) 약 7,173명(승객 5,622명, 승무원 1,551명)
- (규 모) 169,300톤, L 347m, B 41m
- (특이사항) 역대 최대 규모, 대만계 크리티나(CHITINA) 그룹 단체 탑승(3,948명 인천관광)



□ 추진 경과

- '23. 9. 크리티나 그룹 크루즈 인천 방문 확정 및 팸투어('24. 3)
- '23. 11. 중국 상해 '로얄캐리비안' 선사 미팅(市 섬해양정책과, 관광공사)

□ 추진 사항

- (인천관광) ① 인천 관광상품 운영*(92대 버스지원/34백만원),
②신포시장 바우처 지원(4,000원/1인, 16백만원/한국관광공사)
- (편의제공) 승무원 대상 무료 셔틀버스(신포시장 송도/3대), 관광안내소(통역지원 등)
* 전항지(상해) 탑승 후 CIQ 선상 수속(4시간 이상) 확정
- (환영행사) 펜타포트 라이브 공연*(市 예술정책과, 문체부), 입항 행사, 기업 VIP 환영 행사**,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(8~10시), 쉽투어
* 18시~19시 크루즈터미널, 관광객 환송을 위한 밴드(더픽스, 크라이넛) 공연
* * 09:00~10:00 크리티나 그룹 임원진 선상 환영 행사 진행
※ 임원진 환영 행사 시 해양항공국장님 꽃다발 증정 예정

□ 향후 계획

- 입항 행사 관계기관 회의(항만공사, 보안공사, 시설관리센터 등) 및 안전 교육 시행 등